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21)

사명취실(捨名取實)

명성을 버리고 실제를 취하라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어느 집안이 양반일까? 우리집안을 양반 집안이라고 하는데 한번 양반 집안이 되면 영원히 후손들도 양반일까?

과거에 조상들이 큰 업적을 쌓았거나 역사에 이름을 날렸다면 그 후손으로서는 당연히 자랑스러워 할 일이다. 우리 안동 권문은 조선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던 분이 네 분이 있어서 이를 바사시(四始)를 기록하였으니 우리는 분명히 양반이다.

다 아는 것이지만 조선조의 태조가 국가의 어른을 뽑아서 기로사(耆老社=耆老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뽑힌 분이 문질공(文質公) 중화(仲和)와 정간공(靖簡公) 희(僖)이시다. 이분들이 조선조 시대에 나라의 어른이라고 평가되어 어른으로 모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조에 와서 첫 번째 대제학에 문충공(文忠公) 근(近)께서 임명되셨으니 당시 유일한 최고 교육기관의 수장인 문형(文衡)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뿐이라! 국가에서 인재를 기르려고 호당(湖堂)이라는 독서당을 설립하였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뽑힌 분이 일재(一齋) 채(採)이시니 젊은 사람 가운데 가장 촉망 받는 분이었다. 거기에 족보를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우리 집안의 성화보(成化譜)다. 성화보가 나온 뒤에 다른 집안에서도 족보를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니 우리나라 족보 문화의 선구자였다.

이는 확실히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파이오니아(Pioneer) 역할을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조가 훌륭하다고 무조건 그 후손이 훌륭한 것은 아니다. '잘 보는 집안이란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되는 집안이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아들이 그만 못하면, 그리고 그 손자가 더 못한다면 그 집안을 잘 되는 집안은 아니다. 오히려 못난 후손들에게는 훌륭한 선조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 집안이 계속하여 훌륭한 선조를 자랑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후손이 그에 못지않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선조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효가 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한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 아니라 후손들에 의하여 곤두박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과거집안의 형세가 어떠하든 후손이 하기에 따라서 그 평판이 올라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일리 주는 역사가 있다. 7세기에 중원대륙에서는 이연(李淵)에 의하여 당(唐) 왕조가 건설되었다. 새로운 황제 집안이 탄생한 것이다. 이연의 집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 애만(野蠻)으로 여겼던 선비족(鮮卑族)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러니 그 전까지만 하여도 원래

중원지역에서 내노라 하던 집안에서는 거들 떠보지도 않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중원에서는 산동(山東)에 근거지를 둔 최(崔), 노(盧), 이(李), 정(鄭) 같은 여러 씨족들은 스스로 명망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하였다. 당시에 이들은 선조들 덕에 양반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래서 비록 현재에는 보잘 것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옛 조상들을 내세우면서 혼인하고 교제하는데 자기들과 좀 못한 집안과는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어쩌다 자기만 못한 집안과 혼인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재물이나 폐백을 요구하였고, 주변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허명(虛名)을 붙잡고 사는 따지고 보면 못난 후손들인 셈이다.

당고조 이연의 아들 태종 이세민(李世民)이 황제가 되자 그는 현재 잘 된 집안을 정리해서 전국의 명망 있는 집안을 등급을 매겨보라고 일부 상서 고사령(高士廉), 황문사랑 위정(韋挺), 예부 상서 영호덕분(令狐德棻), 중서시랑 잠문분(岑文本)에게 '씨족지(氏族志)'라는 것을 편찬하게 하였다. 그러나 씨족지를 편찬하는 사람들은 전해 내려오는 대로 각 집안의 등급을 매겨서 책을 편찬하였는데, 전해 내려오는 대로 최(崔)씨 집안의 황문사랑 최민관(崔民幹)을 첫째로 올려놓았다. 물론 전통적인 세평대로 최(崔), 노(盧), 이(李), 정(鄭) 등을 명문집안으로 등록한 셈이었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唐代)에 최(崔)씨 집안은 그 전까지의 가치를 고수하다가 선비혈통이 섞인 당고조 이연에게 시대를 이끄는 자리를 내주고 3등으로 추락했다. 물론 당왕조를 건설한 이씨(李氏)도 3백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주역(周易) 건괘(乾卦)에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말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결국 후회할 일이 있다는 철리(哲理)를 설명한 것이다. 최고의 자리란 항상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불안한 자리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집안은 최고 양반 자리에 올라 있으니 이 말은 항상 새겨 두어야 할 경구(警句)이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조상들만이 시대를 앞서가고 이끌만한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 볼 일이다. 되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음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 만약에 현재를 제대로 살수 없다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조상이 재벌이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자랑이 되기는커녕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고, 조상을 육 먹이는 불효가 되는 것이다. 정말로 불肖(不肖) 자식인 셈이다. 두려운 일이다.

씨족지를 다시 편찬하려는 당태종 이세민의 명령을 받은 편찬자들은 다시 편찬하였다. 그리하여 황제집안인 이씨를 첫 번째로, 황후집안은 비록 중원지역에서는 선비족으로 쳐주지 않았지

만 2등급으로 하고, 최씨는 3등급으로 내려졌다. 태종에 의하여 전통적인 집안의 위상이 바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이씨와 최씨의 위상이 뒤바뀐 것이다.

이러한 태종의 바로 잡은 씨족지(氏族志)가 잘못 편찬된 것인가? 아니다. 실제로 당대에 제일 높은 집안은 과거에 그 집안의 선조가 어떠하였던지 간에 현재로서는 황제 집안인 이씨 집안이 최고이다. 허명(虛名)을 버리고 실제(實際)를 험은 평가인 것이다.

물론 이 때에 이세민이 집안을 평가한 기준은 관직의 높낮이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이 양반이라는 것은 조선 시절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그 시절에 우리조상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그 시절에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 기준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당태종처럼 관직의 높낮이를 가지고 집안의 높낮이를 가름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선시대의 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돈일까? 관직일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을 위한 기여일까? 도덕적 우위를 가졌는지 여부일까? 하여간 새로운 기준으로 집안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건 시대를 앞선 창조적 행위를 한 것이다. 당고조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唐代)에 최(崔)씨 집안은 그 전까지의 가치를 고수하다가 선비혈통이 섞인 당고조 이연에게 시대를 이끄는 자리를 내주고 3등으로 추락했다. 물론 당왕조를 건설한 이씨(李氏)도 3백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주역(周易) 건괘(乾卦)에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말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결국 후회할 일이 있다는 철리(哲理)를 설명한 것이다. 최고의 자리란 항상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불안한 자리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집안은 최고 양반 자리에 올라 있으니 이 말은 항상 새겨 두어야 할 경구(警句)이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조상들만이 시대를 앞서가고 이끌만한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 볼 일이다. 되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음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 만약에 현재를 제대로 살수 없다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조상이 재벌이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자랑이 되기는커녕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고, 조상을 육 먹이는 불효가 되는 것이다. 정말로 불肖(不肖) 자식인 셈이다. 두려운 일이다.

씨족지를 다시 편찬하려는 당태종 이세민의 명령을 받은 편찬자들은 다시 편찬하였다. 그리하여 황제집안인 이씨를 첫 번째로, 황후집안은 비록 중원지역에서는 선비족으로 쳐주지 않았지

만 2등급으로 하고, 최씨는 3등급으로 내려졌다. 태종에 의하여 전통적인 집안의 위상이 바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이씨와 최씨의 위상이 뒤바뀐 것이다.

이러한 태종의 바로 잡은 씨족지(氏族志)가 잘못 편찬된 것인가? 아니다. 실제로 당대에 제일 높은 집안은 과거에 그 집안의 선조가 어떠하였던지 간에 현재로서는 황제 집안인 이씨 집안이 최고이다. 허명(虛名)을 버리고 실제(實際)를 험은 평가인 것이다.

물론 이 때에 이세민이 집안을 평가한 기준은 관직의 높낮이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이 양반이라는 것은 조선 시절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그 시절에 우리조상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그 시절에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 기준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당태종처럼 관직의 높낮이를 가지고 집안의 높낮이를 가름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선시대의 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돈일까? 관직일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을 위한 기여일까? 도덕적 우위를 가졌는지 여부일까? 하여간 새로운 기준으로 집안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건 시대를 앞선 창조적 행위를 한 것이다. 당고조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집안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태종 이연은 선비혈통을 가졌지만 그 혈통을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집안도 그 시대로서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어른다움, 교육의 필요성, 후세의 양성, 전통의 재정리라는 새 길을 개척한 것이다.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창조적인 업적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을 유지하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